



사회 >> 3면

사과 하나에 만 원? '애플리케이션' 그만...

기획 >> 4면

'무전공 선발 확대', '단과대 통폐합' 파헤치기

현장르포 >>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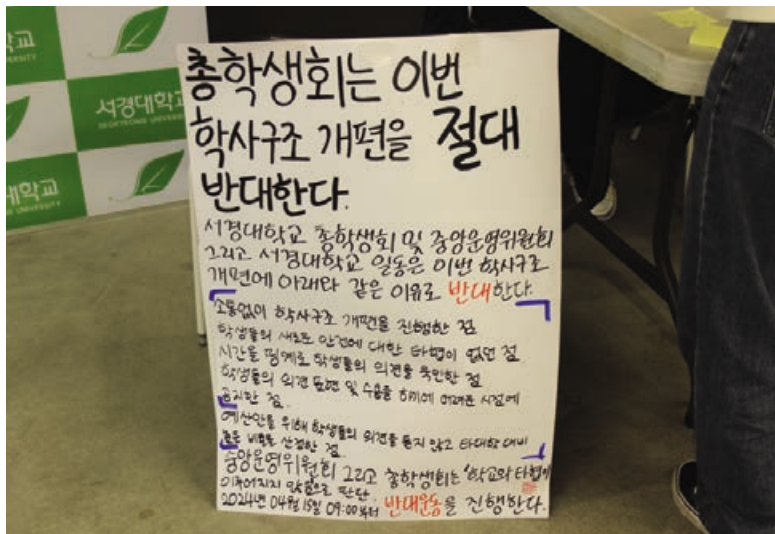
'도서관'의 대변신

제579호

2024년 7월 2일(화)

2025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학우들의 불만 쏟아져

입학 정원 60% 가량 무전공 운영... 일시적 통보에 비판의 목소리 뒤따라



지난 4월 9일, 2025년도 학칙 일부 개정안이 본교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됐다. 개정안에는 인문사회과학

대학과 이공대학을 폐지 후 융합대학인 '스콘칼리지'로 통합하고, 세부 전공들을 결합해 '스마트시티엔

리버빌리티학부', '글로벌비즈니스엔터테인먼트학부',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대학 정원의 일부(20~25%)를 무전공 제도로 운영 시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정됐다. 전략사업과 교과과는 4월 17일까지 검토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학사구조 개편에 학우들의 반발이 빚뿜됐다.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중요 공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 "커리큘럼은 기존대로 보장되는 것이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학생들 사이에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반대 의견을 표현하자는 여론이 일었다.

한술 총학생회는 인스타그램에 단대 통폐합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을

인지했으며, 긴급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진행을 통해 학우들의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달하겠다고 공지했다. 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통보하고, 하루 만에 독단적으로 학칙을 변경하려 한 점 등을 문제삼아 학사구조 개편을 반대한다는 성명문을 게재했다.

4월 11일 개최된 긴급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 및 중운위와 학생처장간 학사구조 개편 관련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후 총학생회는 전학대회 직후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본부와 미팅을 진행했지만, 학교 측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4월 15일 학사구조 개편 반대 서명운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진행되는 총장과의 면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 총장실 앞 점거 등 반대 운동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월 12일부터 학교 곳곳에 대자보가 부착됐다. 대자보에는 ▲소통 없이 개편 진행 ▲새로운 안건에 대한 타협 전무 ▲학생들의 의견 표현이 어려운 시기에 발표된 점 ▲타 대학 대비 높은 무전공 비율 선정 등의 이유로 학사구조 개편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북악관 앞

과 청운관 1층 부스에서 학사구조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담은 포스트잇을 게시판에 부착했다. 4월 16일 총학생회는 전날 진행된 총장과의 면담에서 총 1,884명의 서명부를 전달해 소통 문제 해결을 약속받아 반대 운동을 잠정 중단기로 했다.

4월 18일에는 본교 문예홀에서 전체 학생 대상 학사구조 개편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처장단 및 학생처 관계자들과 70명의 학생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4월 22일 서경대 홈페이지에는 총장 담화문이 게시됐다. 김범중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24학년 재학생까지 소속 학위 및 커리큘럼 유지 ▲단과대학 및 신설 학부 명칭 수정 ▲재정지원금을 학습 환경개선에 우선 투입 ▲향후 주요 사안 발생 시 소통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4월 25일, 한술 총학생회는 학교로부터 학생 의견 수용안을 확인받아 반대 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4월 30일, 신설 단과대학 명칭을 '미래융합학부'로 변경된 내용이 담긴 학칙 일부 개정안이 정식 공포됐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서경대, 전국 졸업생 평균 취업률 훌쩍 뛰어넘어... 5년 연속 서울 'TOP 10'



▲ 출처: 서경대산학협력처 홈페이지

서경대학교가 서울 주요 대학 중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취업률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서 2024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본교는 지난 3년간 71.2%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전국 일반대 평균 취업률 64.2%를 크게 웃돌았다.

본교는 단순 취업률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 지난해 한국대학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본교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세 자릿수 이상의 정규직 취업자를 배출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합격자가 나왔다. 취업시장에서 인기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본교는 2023학년도에 아트엔테크놀로지학과와 스포츠엔테크놀로지학과를 신설했다. 또한, 융합대학 내에 사이버문학, 첨단인터랙티브공연 등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서경대학교는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융합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으로 높은 취업률 유지 및 발전에 힘쓰고 있다.

박상현 수습기자
(pasahy@skuniv.ac.kr)

소프트웨어학과, 졸업하려면 'SW 교육' 필수 수강... "선택하게 해 달라" 요구 빚발쳐

지난 4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SW 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켰다.

2025학년도 학사 구조 개편 공고로 연일 에브리타임을 뜨겁게 달구던 중, 소프트웨어학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SW전문인재 양성사업' 교육에 대한 폭로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게시된 소프트웨어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SW전

문인재 양성사업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4학년이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교육 수강 시 졸업작품 면제, 캡스톤 설계 1, 2 중 한 과목 면제, 4학년 교과목 4개 수강 조건에서 3과목이 면제된다. 또한 2024년 1학기부터 SW전문인재 양성 교육이 필수로 지정됨에 따라 2024년 복학 예정인 학생은 학과 게시판을 통해 공고되는 교육 신청을 반드시 해야 했다.

소프트웨어학과 재학생들은 "의

무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필수 수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한 현재 빅데이터/AI, 클라우드/백엔드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도 반발했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도 잇따랐다.

오는 2학기 SW캡스 수강생의 기

속사 입사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 학생들은 불만을 표했다. 오랜 시간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교육이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후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처장과의 협의 결과, 2학기에 기숙사 입사를 신청한 수강생 모두 기숙사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수강 여부 결정권과 소



프웨어학과와 전자컴퓨터공학과 학생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학생회는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2월 졸업한 소프트웨어학과 19학번 졸업생 A 학생은 "작년 2학기에 처음으로 교육이 시행될 때는 필수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선학

순 마감이라 원했던 트랙이 아닌 다른 트랙을 수강하게 됐다"며 본인 외에도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트랙 외에 분야가 다양한데 선택지가 두 개뿐이어서 아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경대는 지난해 소프트웨어 전문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7개월간 정부지원금 52.5억 규모로 수행되는 사업은 서경대 산학협력단의 주관 아래 '서경SW아카데미'에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멘토링과 채용을 실시한다.

송민경 기자
(lildawn012@skuniv.ac.kr)



바쁜 나날에도 가끔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를

진로 탐색은 취업 연계 중점대학 · 현장 실습 학기제로

2024학년도 취업 연계 중점대학 · 현장 실습 학기제 설명회, 성공적인 개최 이뤄져



서경대학교 2024학년도 취업 연계 중점대학 · 현장 실습 학기제 설명회가 지난 4월 11일 유담관 Co-Working Space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본 설명회는 현장 실습 지원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 근로 장학사업인 '취업 연계 중점대학'과 '표준현장실습 학기제'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후

현지 동문 초청 특강이 진행됐다. 이는 취업, 인턴, 직무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한 자리다. 취업 연계 중점대학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 근로 장학사업의 형태로,

전공과 연계된 실무 능력 향상 및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는 기업 수요 맞춤형 실무 인재의 양성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현장실습 학기제는 정규 교과 과정의 형태로 대학과 실습 기관 간 산학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통한 진로 탐색과 더불어 학점 인정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취업 연계 중점대학 신청 자격은 직전 학기 성적 CO 이상의 재학생이며, 소득 분야에 제한이 없다.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신청 자격은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이며, 성적 제한이 없다. 단, 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자가 필요하다.

현지 동문 초청 특강에서는 공공인적자원학부(현 공공인재학부) 13학년 졸업생과 문화콘텐츠학부(현 광고홍보콘텐츠학과) 16학년 졸업생의 강의가 진행됐다. 학부 재학 시절 쌓은 경험과 국가 근로 장학사업을 통한 진로 설정의 장점을 공유했다. 강의 후 많은 학생들의 질의가

이뤄졌다.

한편, 본 설명회는 포탈의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이 이뤄졌다. 빠른 정원 초과로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추가 모집이 진행됐으며,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호응을 보였다.

2024년 하계 방학 취업 연계의 학생 모집은 1차(04.15~05.01)와 2차(05.16~05.29) 모집으로 이뤄졌다. 지원자는 지원서 및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전 한국장학재단 2024년 1학기 국가 근로 장학금 신청을 필수로 해야 한다.

취업 연계 및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에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서경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 또는 현장 실습 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또 대학 일자리 플러스본부인 스타그램 계정(@seokyeong.job)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소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강예진 수습기자 <jinrvd@skuniv.ac.kr>

“창업에 관심 있다면 여기로”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서경대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지난 3월 29일 개설됐다.

창업지원센터는 다양한 창업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학생들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는 양질의 자료를 제공해, 창업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대학 · 연구소 창업, 글로벌 · 투자연계형 창업,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는 실제

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업 단절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창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학점 창업 휴학, 창업 실습, 창업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커뮤니티'에는 창업 관련 공모전이나 교육 등을 안내하는 공지사항과 외부 기관과의 공동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알리는 성과 내용이 나타나 있다.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우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들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한숲’ 총학생회, 학생들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건의사항 창구 개설해



▲ 출처 : 한숲 총학생회

지난 3월 13일, 서경대학교 제 52대 '한숲' 총학생회에서 여덟 번째 공약인 노후화 시설 보수 체계 정비를 위해 '시설물 및 건의사항 창구'를 개설했다.

창구를 통해 교내 시설물 사용이나 학교생활 중 불편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건의사항은 각 학과 카톡방 및 한숲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작성 가능하다. 건의 방법은 먼저 이름, 학과, 학번, 연락처 작성 후 시설물과 건의사항 중 하나의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보수를 희망하는 위치와 수리 내용을 자세히 작성한 후, 보수를 희망하는 곳의 사진을 업로드해 등록하면 된다.

한숲 총학생회에 따르면 수집된 건의사항은 취합한 후 학생처에 전달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편 개선을 위해 건의 창구를 임기 동안 상시 운영된다. 한숲 총학생회는 "건의창구를 통해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더욱 쾌적한 교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아연 수습기자 <yx0nd1@skuniv.ac.kr>

‘어디로 서야 하나요?’ 이제는 달라진 2115번 버스 줄 서기

이번 학기부터 2115번 버스 줄 서는 곳이 달라졌다. 학우들이 많이 이용하는 2115번 버스 줄은 늘 북악관까지 길게 늘어선 일주 수요일에는 북악을 맞이하여 보양식 행사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작년 '위로' 총학생회에 따르면, 휴먼극장 및 통행의 불편함 등의 이유로 2115번 버스 대기 줄은 지하통로를 통해서 서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햇갈리는 학

우들을 위해 북악관 교통통계 근로학생이 줄서기를 돕고 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일명 '폭풍의 언덕'을 통한 하룻길 통행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2024 해외취업연수사업 설명회 개최, 작년보다 25%증원 돼...

지난 4월 3일, 8일, 9일, 15일 13시에 2024 해외취업연수사업(글로벌 비즈니스 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2기) 설명회가 유담관 L층 Co-Working Space에서 개최됐다.

본 설명회는 사업 소개, 해외취업 컨설턴트, 1기 연수생 멘토링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 스쿨)으로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학과 직무, 현지 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대학생들이 미국 취업까지 연계되는 과정이다. 본 과정은 운영 대학인 삼육대를 중심으로 서경대, 대진대, 덕성여대가 '글로벌 이노비즈 서울북부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 적정성 심사를 통해 작년에 이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진행된다. 한편 서경대학교는 작년 15명에서 올해 20명으로 작년보다 5명 더 증원된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본 과정에 합격하면 6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0시간의 교내교육과 200시간의 해외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내용은 직무 170시간, 어학 400시간, 필수 및 기타 교육 30시간으로 진행되며 10월부터 기업 매칭 및 수속을 진행하여 25년 1월부터

교육생들의 해외인턴 생활이 시작된다. 미국 체류는 J-1 문화교류 인턴 비자를 통해 12개월간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며, 이 기간 동안 예비자 과정도 함께 진행됐다. '글로벌 기업 및 직무분석', '영문이력서 작성 A to Z' 등 해외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해당 특강을 수강한 경우 본 사업 연수생 선발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5월 10일 서류전형 합격자 35명이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됐다. 서류전형 합격자들은 5월 17일 유담관 L층 CLC ZONE에서 심층 면접을 봤다. 면접은 1대1 어학 면접 7명, 5인 1조 심층 면접 35명으로 이뤄졌다. 5월 21일 2기 합격자들이 공개된 후 6월 30일부터 양성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본 과정을 통해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해외 직무와 어학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 해외취업 연수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 전화(02-940-7613, 7626) 또는 e-mail (worldjob@skuniv.ac.kr)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근 수습기자 <worm1207@skuniv.ac.kr>

내리쬐는 햇살에도 “김장 나누어 봄”

서경대 풀잎봉사단과 함께하는 '2024 봄 김장' 58명 참석



지난 5월 4일, 서경대학교 풀잎봉사단이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4 봄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에는 서경대에서만 풀잎봉사단원 13명, 재학생 13명과 교직원 7명 등 총 33명이 참석했으며, 사랑봉사회 7명, 기관 직원 7명, 내빈 10명, 외부인 1명 등을 더해 총 58명이 김장에 참여했다. 이날 김장은 약 2년 만에 재개한 2022년 김장 행사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 덕분에 일사천리로

펼쳐졌다.

지역 내 식생활 지원 대상자 및 기타 취약계층 가정 등 총 8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사를 통해 김장 김치가 거동 불편 당사자 약 40가정에 배달됐다.

이날 이른 시각에 집결한 봉사자들이 워셔도, 우비, 고무장갑 착용을 마쳐자 내빈이 자리해 인사를 전했다. 김장에 앞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300만원이 전달됐다. 이후 진행된 김장은 빠른 속도로 양념 버무리기와 포장

마친 다음 뒷정리를 끝내고, 조를 편성해 배달에 나섰다. 봉사자들은 8kg의 김치를 낫았다.

80대 김 할머니는 "겨울이고 봄이고 항상 맛있는 김치를 집까지 배달해 줘서 고맙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박 할머니는 "더운 날씨에 고생한다"면서 음료수를 건넸다.

배달을 마친 후 복지관에 돌아온 봉사자들에게 갓 담긴 김치와 수육에 신선한 과채를 곁들인 점심 식사가 제공됐다.

만족도 조사 결과, 다수의 학생이 "학우들끼리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풀잎봉사단은 치솟는 물가 부담과 겨울 김장 김치가 동나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봄 김장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에는 북악을 맞이하여 보양식 행사를 할 예정이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한 눈에 보는 이슈

<p>정치</p> <p>여당 참패 속 제22대 국회 출범...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행정수도 이전' 순풍 탈 수 있을까?</p>	<p>경제</p> <p>사과 하나에 만원? '애플레이션' 그만...과일값 폭등 원인과 그 대안은</p>	<p>사회</p> <p>평일엔 바쁜 도시 생활, 주말엔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기는 '4도 3촌' 시대의 도래!</p>	<p>문화</p> <p>성인물계 유튜브 온리팬스, 청소년도 규제없이 이용 가능하다</p>	<p>연예</p> <p>BBC가 공개한 '버닝썬' 다규, 폭발적인 반응... '버닝썬 게이트' 연루 의혹 연예인 재조명</p>	<p>스포츠</p> <p>과한 세리머니에 "야구 불문을 어겼다"...한화-KT 경기 직후 벤치 클리어링</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여당 참패 속 제22대 국회 출범...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행정수도 이전' 순풍 탈 수 있을까?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제시한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에 야당 및 기타 정당이 호응했다.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진행과 세종 행정수도 건설이 모두 순풍을 탈 것 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27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와 같은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떠난 여의도는 고도 규제를 풀고 뉴욕 같은 금융·문화 도시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 또한 국회 완전 이전에 찬성하며 대통령실 이전까지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의 이전까지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국회 세종 이전론의 원조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선거 때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약했던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오랫동안 취해왔던 입장기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권은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찬성한 여당 측을 환영하면서도 진정성에 의심을 표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총선 당시 "제가 (민주당) 당대표 하던 시절, 그러니까 대선 이전에 저희가 국회 기능의 대부분을 세종으로 옮긴다고



▲ 출처: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했을 때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별로 도와주지 않았었는데 그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은 어느 쪽이 진짜인지 그걸 묻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한편 국회의 세종 이전은 2031년 국회세종의사당 준공을 목표로 이미 건립 추진 중이다.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지지부진하다 지난해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 통과하며 추진력을 얻었다. 다만 현 국회세종의사당은 완전한 이전이 아닌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의 주요 권한을 가진 곳과 일부 6개 상임위는 서울에 남겨둔 채 국

회 본원으로서 기능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 행정수도 건설특별법' 등 국가 균형 관련 3법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이는 200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리며 좌절됐다. 이후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를 재차 추진했으나 야당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22대 국회는 국회 및 수도 이전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 이전

은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일인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완공될 세종의사당에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분관 등 국회 소속기관 직원이 근무하며 신규 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세종시 집값 폭등 여부와 수도권 집값 안정화·효과 등이 주목된다. 한편 세종시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집중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요인을 고려한 교통 개선 대책을 계획 중이다.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사과 하나에 만 원? '애플리케이션' 그만... 과일값 폭등 원인과 그 대안은

최근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 소비자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일 가격이 폭등했는데, 사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올랐다. 이외에도 △배(87.8%) △귤(68.4%) 등의 가격이 같은 기간 크게 올랐다. [출처: 시사위크] 이처럼 올해 과일값이 '금값'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으로 이상기후 현상을 들 수 있다. 지난해 봄철 저온으로 인해 착과 수량이 감소하고, 여름철의 가뭄과 장마 현상으로 낙과 발생이 늘어 수확량이 평년보다 30% 가량 급감했다. 특히 사과의 경우 생육기 평균기온은 15~18도인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지만 한반도의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 절대적인 재배면적이 줄고,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다.

통계청의 주요 농산물 주산지 이동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지는 16.7% 감소한 데 비해 강원도의 사과 재배지는 164.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농가 고령화로 인건비가 증가한 것도 과일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원인으로 복잡한 유통구조가 꼽힌다. 과일의 시세는 경매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과일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들이 이윤 창출을 위해 암묵적으로 마진을 과도하게 붙이기 때문이다. 생산자와 산지공판장,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를 거치면서 수수료와 유통 마진이 서서히 붙어 소비자에게는 산지 가격보다 약 3배가량 비싸게 판매되는 것이다.

자취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사과



▲ 출처: 연합뉴스

하나가 12,800원이라. 간단하게 아침을 챙기기 위해 과일을 종종 샀었는데 이전 못 사겠다. 과일 외에 다른 식품 가격들도 너무 올라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시키게 된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과일값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및 가격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 3월 18일, 윤 대통령은 1,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체 품목 수입과 할당 관세 품목의 확대 등 물가 상승세를 꺾을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할인지원금으로 오히려 수가가 늘어나 과일값이 줄기는 힘들며, 재배면적이 급감한 현 상황에 대해 품목 수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비싸진 과일을 대체할 식품을 찾는 추세다. 과일의 대체재로 떠오른 것은 다른 야채와 냉동 과일, 제로 음료 열풍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GS25와 CU의 과채 주스 매출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각각 15.5%, 10.5% 증가했다. 신선과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과일의 수입량도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갈수록 치솟는 농축산물 가격으로 인해 구매를 포기하고 대체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남과 더불어 품질을 매우 중요시하던 과거의 인식도 바뀌었다. 최자가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쿠팡과 티몬, 지마켓 등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배송이 빠른 장점을 갖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상기후로 불가피해진 식품 물가 상승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현대인들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한다.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 이상기후 위험에 대비하고 농축산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평일엔 바쁜 도시 생활, 주말엔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기는 '4도 3촌' 시대의 도래!



▲ 출처: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이 서울에 집중되는 '서울공화국' 문제가 날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저출생 등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명 '4도 3촌'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4도(都) 3촌(村)'이란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번갈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농촌 인구 중 청년 비율은 21.4%(205만 명)로, 2027년까지 농촌 인구 중 청년 비율을 약 22%(212만 명)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 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 균형 발전 등 국가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운 전략은 3가지로, ▲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 농촌 지역 삶의 질 혁신이다. 정부는 '4도 3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에 6만 6,000개에 이르는 빈집을 숙박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우수계층이 떠난 빈집을 농촌의 골칫거리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빈집 500채에 대해 숙박업 실증특례(법으로 금지

하고 있어 검증하고 있는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농촌에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집주인이 숙박장소와 붙어있는 별도 공간에 거주해야 했지만, 규제를 부분적으로 풀게 됐다. 민간 부동산 매매 플랫폼과 연계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농지법을 개정해 주말 체험 농장과 거주 공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해 '농촌 살아가기 체험'이 가능하도록 체험형 심터를 설치한다. 그동안 주말농장을 위해 잠깐 농촌으로 왔다가 도시로 되돌아가는 형태였지만 체험이 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케이션(휴가지에서 근무)'을 위한

공유형 숲 오피스, 치유 농업, 지역 미식 벨트 등 치유 및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전 국민 일주일 농촌 살아가기' 등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농촌 관광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청년을 공략해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농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농지·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후계농자금'을 매년 500명에게 지원하는 등 교육과 자금 지원도 마련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 해체 방침도 구체화됐다. 3ha 이하인 전국 농지 2만 1,000ha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농촌형 비즈니스를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실증 등 복합공간을 갖춘 '농촌 청년 창업 콤플렉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2만 1,000ha에 이르는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3,600ha)은 해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농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대비되어야 할 거주 공간 마련에 있어서 지역 단독주택 건설에 대한 젊은 층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업계는 30~40대의 다양한 건축 수요를 반영한 일명 '합한 주택'의 설계와 시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파이낸셜 뉴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성인물계 유튜브 온라인팬스, 청소년도 규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영국의 유료 구독형 SNS Only Fans(온리팬스)가 SNS 시장과 성인물 업계에 지각 변동 일으키고 있다. 온리팬스는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SNS 플랫폼이다.

지난 2016년 설립 당시, 온리팬스의 목적은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8년 포르노 제작자 레오나드 라드빈스키가 75%의 지분을 인수하고 난 이후로 온리팬스는 다른 노선을 타게 됐다. 각종 성인물을 검열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성인물을 제작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온리팬스가 확고한 수익 모델을 통한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자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에 약자가 쌓인 사람들이 대거 온리팬스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온리팬스의 영향력은 상승 곡선을 그리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재 온리팬스는 전 세계에 2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거느리며 대표적인 성인물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이를 두고 인간의 욕망을 비즈니스 삼아 파괴적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출처: 매거진한경]

성인물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대한민국에서 온리팬스를 통한 성인물 제작과 유통은 당연히 불법이다. 성



▲ 출처: 미디어

인물을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음란물 유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불법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 시 엄중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료 구독형 SNS를 통한 불법 성인물 유통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에서 온리팬스는 여러 방송인이 이용하고 관련 커뮤니티가 생길 정도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국내외로 온리팬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에 따른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망이 형성되고 기준에 따른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급격히 성장해 버린 탓이다. 대표적인 문제로 성 착취 논란, 청소년 음란물 노출, 불법 영상 제작 및 유통 등이 있다.

특히 온리팬스의 청소년 규제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입 절차와 결제 방식에 있어 특별한 인증 절차를 마련해 두지 않아 성인

과 청소년을 구별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인터넷 조작에 능통한 어린이라면 성인을 가장해 온리팬스에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내용물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와 통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간단하게 조작한 신분증과 사진 위조만으로도 콘텐츠 판매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청소년들이 성 착취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온리팬스 콘텐츠는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영상이 유포됐을 시 발생할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청소년 이용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kyhu@naver.com)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야”

서경대, 2025학년도 학사 구조 개편...

‘무전공 선발 확대’, ‘단과대 통폐합’ 파헤치기

2025 학사구조 개편안 A부터 Z까지, 타임라인 총정리

4월 9일, 2025년도 학칙 일부 개정안이 본교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됐다. 개정안에는 인문사회과학대학과 이공대학 폐지 후 융합대학인 '스콜라지'로 통합하고, 기존 전공들을 결합한 '스마트시엔티버빌리티학부', '글로벌비즈니스엔테크놀로지학부',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술 총학생회는 당일 저녁, 긴급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달하겠다고 공지했다. 또 학사구조 개편 반대 성명문을 게재해 학교 측의 독단적인 행동에 유감을 표했다.

4월 11일, 긴급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와 학생처장 간 학사구조 개편 관련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실시된 전학대회에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술 총학생회는 4월 15일 반대 서명운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총장과의 면담에서 합의 결렬 시 총장실 앞 점거 등 반대 운동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월 12일, 한술 총학생회는 학사구조 개편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 곳곳에 부착했다.

4월 15일, 복악관 입과 청문관 1층 부스에서 총학생회 주관 학사구조 개편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같은 날 총장과의 면담에서 재학생 총 1,884명의 서명부가 전달됐으며, 학교로부터 소통 문제 해결을 약속받아 16일 반대 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4월 18일에는 본교 문예홀에서 전체 학생 대상 학사구조 개편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처장단 및 학생처 관계자들과 70명의 학생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4월 22일, 본교 홈페이지에 김범준 총장의 담화문이 게시됐다. 김 총장은 담화문에서 현 재학생의 소속 학위 및 커리큘럼 유지, 신설 단과대학 명칭 수정, 소통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후 4월 25일 한술 총학생회는 학교로부터 학생 의견 수용안을 확대받아 반대 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 학칙 일부개정이 공포됐다. 개정된 학칙에서 신설 단과대학의 명칭이 미래융합학부 1, 2로 수정됐다.

대학을 달군 화제의 중심... 무전공제란 무엇인가?

최근 학교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다. 바로 '무전공제(전공자유선택제)' 도입으로 인한 단과대학 통폐합이다. 무전공제란 입학할 때 전공 구분 없이 입학해 1년 동안 전공 탐색 후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전공 선택 시 보건의료, 사범대학 등 특정 전공을 제외하고 전체 대학 또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1월 30일 교육부는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비 8,852억 원 중 절반이 대학의 자율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배분된다. 또한 "전공 없이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하여, 그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을 활용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원 사업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발표에서는 2025년도부터 대입 선발에서 무전공 확대 비율을 재정지원사업 정성 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전공 선발 인원을 25% 이상으로 늘리면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확대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을 주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늘려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다.

무전공제를 운영하면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진로를 탐색 후 전공 선택이 가능해진다. 학부 내에서 일 년 동안 전공 간의 경계 없이 여러 학문을 접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를 응용·활용할 수 있는 핵심 역량에 적합한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무전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2024년 3월 발표된 대학교육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무전공제를 도입한 주요 4년제 일반대학 중 70% 이상에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컴퓨터공학과나 경영학과와 같은 인기 학과로 집중됐다. 무전공제의 확대로 전공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면 미래 유망 학문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학문은 점차 소멸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과는 어긋난다.

또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무전공제 학과의 중도 탈락률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전공제 시행의 주요 목적이지만, 중도 탈락률이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이 대학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공자유선택제, 다른 대학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 출처: 연합뉴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자유선택제(이하 무전공제) 시행을 발표하는 대학교가 늘고 있다. 무전공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 1은 보건의료 등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며, 유형 2는 계열 및 단과대학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서경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 역시 교육부 전공자유선택제 권고 사항에 맞춰 학사 제도를 개편하는 상황이다.

건국대학교 학사구조 개편안을 살펴보면, 일부 학과의 입학 정원을 줄이고, 줄인 정원을 신설한 자유전공학부에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과학대학에 속하는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융합인재학과를 폐교하고, KU 융합과학기술원 4개 학과(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를 공과대학 유사 학과와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학생들은 통폐합과 정원 축소가 대규모 이뤄짐에 반발을 표출했다. 서경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학사구조 개편을 진행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재학생들은 행정관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며 학사구조 개편을 반대했고, 총장실 문 앞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계속해서 반대를 표했다. 학교 측은 학사구조 개편은 불가피한 일이며,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덕성여자대학교는 259명 규모인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고,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는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불문·독문 폐교에 관한 대학 측 입장은 전공 평가 결과가 낮아 학사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뜻이지만 일각에선 무전공제 시행 인센티브와 비인기 학과인 점을 고려했다는 견해다. 덕성여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원 역시 학교 폐지를 반대하며 파격 시위를 벌였다.

성균관대학교는 기존에도 계열별 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해 왔기에 유리한 면이 많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역시 정원 280명의 자유 전공계열을 신설하여 무전공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많은 대학교에서 무전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기존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을 늘리기로 했으며, 한양대학교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자유전공학부인 한양인터칼리지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무전공제는 과목 선택 자유와 진로 탐색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학과 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전공 쏠림 현상과 중도 탈락 가능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인센티브보다 대학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총학생회장단·중앙운영위원회, 총장 면담 가져...무슨 이야기 오갔나



지난 4월 15일 11시, 본관 회의실에서는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운영위원회와 총장의 면담이 이뤄졌다. 이날 면담은 지난 4월 12일 학교 측에서 제의하며 마련된 자리로,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예산처장의 추가 배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면담에는 총학생회 및 중앙

운영위원회, 학생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무전공 정원 선발 확대에 관한 단과대 통폐합에 의문을 표하며, 급작스러운 학교 측의 통보로 말미암아 야기될 학생들의 혼란에 우려를 내비쳤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걱정할 일 없게끔 하겠다"면서 커리큘럼 및 졸업 보

장 문서화와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한편 총장은 "우리 학교는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이 아니라 실용을 추구하는 대학"이라며 "그러면 4년제 전문대와 다름없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순수 학문을 하고 싶으면 다른 대학에 가야지"라며 "알고 온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소통의 부재가 낳은 분노... 이제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 단과대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16일, 단과대 및 총학생회장단은 학칙 일부 개정안 및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자 처장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먼저 인문사회과학대 간담회가 진행됐다. 학생처는 무전공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던 작년 10월부터 4월 9일 학생들에게 학칙 개정안이 공지되기까지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했다.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해 입시, 입학 정원에 관한 내용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신고해야 하나 1월이 지난 시점에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1월 8일, 학생처장이 직접 학생 간부들에게 무전공제 실행 예정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과거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재정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융합 교육을 강화하는 학부를 만들어야 했음을 강조했다. 급작스러운 학칙 개정이 학생들의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 예상했으나 '폐교 후 신설'의 표현이 학생들에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전공제 실행 시 전공 취득 학점이 부족해져 추가 학기를 들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아동학과와 경우, 자격증 취득 과정은 해당 학과 교수님과 협의할 예정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결정된 바가 없다며 추후 공지할 것이라 답했다.

수시로 바뀌는 졸업요건이 재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것에 교무처장은 학과에서 요청한 사안은 학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승인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이어 기한의 촉박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학칙 개정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처장단의 미흡한 대처를 인정했다. 위기를 발판 삼아 더 성장하는 대학이 되길 바란다면 인문사회과학대 간담회를 마쳤다.

인문사회과학대 간담회에 이어 이공대 간담회가 진행됐다. 본격적인 질의응답 전, 학생처장은 무전공제 실행 후에도 재학생들이 변동 없이 현재 학과 소속대로 학위를 받아 졸업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제도 보완에 최대한 힘쓰겠다는 말을 전했다.

편제정원표에 등재된 학부 입학 정원들과 같이 전공 정원 수도 현재와 동일하게 연계되는 지에 대한 학생 측의 질의에 입학처장은 세부 전공, 전공별 인원수, 전공명 등에 관한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입학 총 정원수는 같으나 무전공으로 입학 후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 기회가 주어지게 전공별 인원은 정해진 바가 없음을 덧붙였다.

무전공제 실행 이후의 학과 존속 여부에 관해 처장 측은 비인기과를 폐지하고 수요가 높은 과를 신설하는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학생 측은 전공 선택 폭을 늘리기 위한 제도 도입에도 비인기과는 폐지되는 과정을 반박해야 하는 실상에 도리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뺏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다.

커리큘럼 변화가 없을 것이라 처장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통폐합, 폐교를 통해 변동은 겪어온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적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처장 측은 본래의 학적 유지, 휴학 후 복학 시 지위 보장, 전공 폐강 등과 관련해 문서화를 약속했다. 문서화에 포함되는 요구사항은 내용에 따라 반례될 수 있으며 절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질의 건안은 각 학과 별 커리큘럼의 향후 방향성에 초점을 뒀다. 제도 도입 후 생기는 문제점은 학생들과 의논을 통해 최대한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것임을 피력하며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마쳤다.

“지난날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 처장단-전체 학생 간담회 개최



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간담회는 간략한 경과보고 이후 곧바로 질의응답 및 건의 순서에 들어갔다.

앞선 단과대 간담회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학교 측의 불통에 항의하고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토 의견서 제출, 서명운동 및 간담회 참석을 통해 학생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학교의 입장이 완강했다는 점에 대한 무력감도 드러났다.

일부 학생은 지난 4월 9일 게시된 '학칙 일부 개정안 사전 공고' 내에 명시된 인문사회과학대와 이공대 폐지에 반대하며 스킨십을 표했다. '스마트시엔티버빌리티 학부'와 같은 신설 학부의 추상적인 작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며,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학부나 전공은 두 가지 이상의 전공으로 세분화할 것을 건의했다.

2025학년도부터 시행될 무전공 제도에 대한 지적도 주된 건의 내용이었다. 무전공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인기와 쏠림 현상과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신입생의 중도 탈락 등이 거론됐다. 정권 교체 시 무전공 제도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은 없는지 묻기도 했다.

처장단은 단과대 간담회에서와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주요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한 사과, 학사구조 개편을 둘러싼 왜곡된 정보 정정, 이후 있을 세부적인 개편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가장 먼저 처장단은 "여러분과 제대로 된 소통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든 남은 시간이라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노력하는 중"이라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처장단은 학칙 개정안 내 명시된 '폐교'와 '통합

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정정했다. 처장단은 "재학생 여러분의 학과는 폐지되는 것이 아닌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학부 단위로 묶어 놨지만 기존 전공을 다 살릴 것"이라고 일축했다. 스킨십, 스마트시엔티버빌리티학부 등의 명칭 변경 요구나 전공 세분화 건의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수진 간 협의만 완료된다면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무전공제 도입을 통한 신입생 선발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학교 측은 이미 해당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맞춘 대안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쏠림 현상으로 인한 폐교를 막기 위해 내년 신입생 정원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며, 인기 과에서 정원 과밀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교수 총원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과와 진로·전공 탐색 프로그램 운영 등 보완 대책을 통해 학생들이 모두 원하는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기에 중도 탈락률 증가는 성급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처장단은 학교의 개편이 무리하거나 성급한 것이 아닌 한국의 교육 기초에 충실한 개편이라 주장했다. 미래전략 처장은 "여야에 관계없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육부의 방향성은 학생들의 권익을 보장하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무전공제 및 추가적인 진로 교육 도입이 바로 교육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초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간담회는 학교와 학생, 교수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창구를 모색하겠다는 처장단의 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간담회에서 학교가 남긴 약속들은 대체로 모호하며 반영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어렵다. 두 약속 이행과 총장 남긴 문서와 작업 모두가 명확히 지켜질지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5 학사구조 개편, 학생들 불만 고조... '소통 부족' 비판 잇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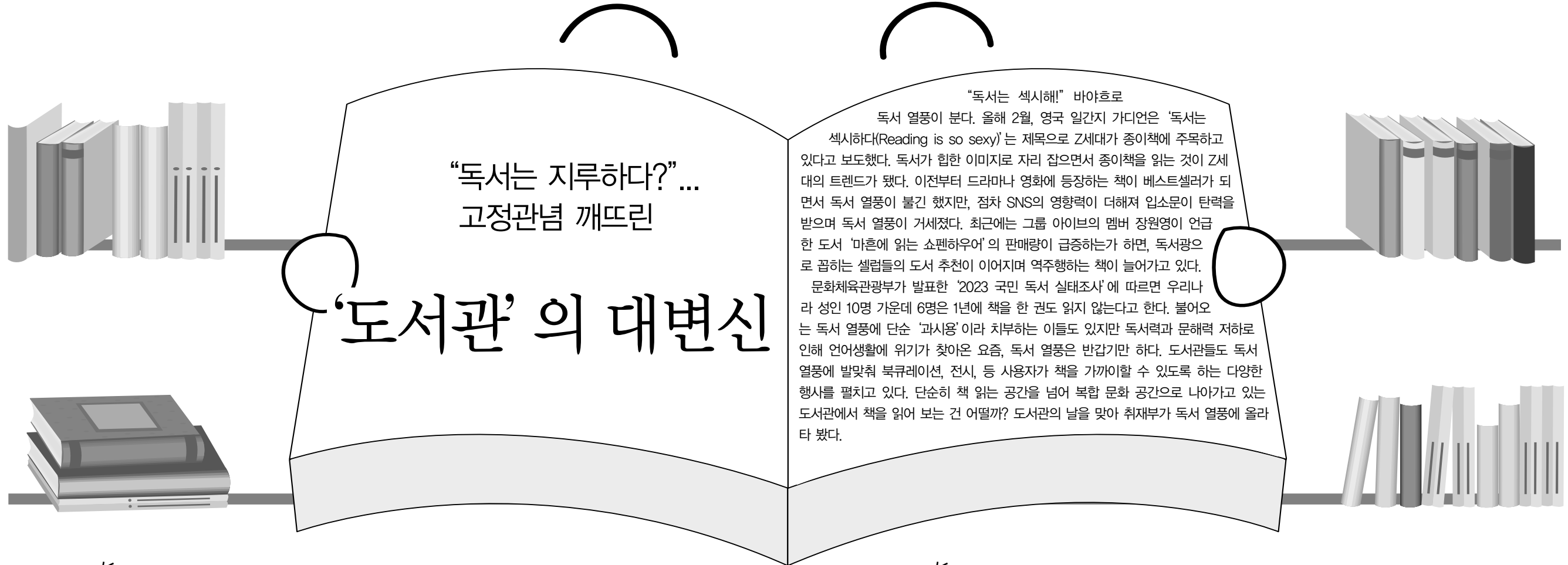


학칙 일부 개정안이 4월 9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된 직후, 학생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한술 총학생회는 긴급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러한 반발의 배경에는 학교 측의 소통 부족이 크게 작용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공지하고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여러 전공이 합쳐지면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공 세부화를 요청했다. 아동학과 재학생들 또한 실습과 관련된 전문성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아동학과와 경우 실습을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하는 커리큘럼 단계가 있다. 1학년용 기존 커리큘럼이 아닌 무전공 상태로 보낸다면, 그로 인해 생길 커리큘럼 및 실습 문제에 대해 염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확실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랐다.

군 복무 중인 전자컴퓨터공학과 소속 군 휴학생도 불만을 나타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들의 메시지 연락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하며, 전역 후 본인이 어떤 소속으로 복학해야 하는지 자신의 수강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는 미필 남학우들의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는 불안 요소다. 이들과 같은 복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 확실한 설명회 및 안내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의 일방적 학칙 개정안 발표와 소통 방식에 대해 많은 학생이 분노하고 있다. 학생들은 앞으로 본교에 있을 변화에 대해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주길 바라고 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경험의 공간’ 이 될 도서관

정부는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그로부터 1주년을 도서관 주간으로 지정했다. 2023년 첫 번째 도서관의 날 이후 2024년 올해로 두 번째 도서관의 날을 맞았다.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정보만 손쉽게 수집할 수 있고, 전문가가 직접 주제를 설명해 주는 동영상도 손쉽게 시청할 수 있는 지금이다. 이런 세상에 책이, 도서관이 필요할까? 도서관은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필자는 감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도서관의 소멸을 예상했던 독자들도 본문을 통해 도서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도서관의 3요소를 자료(책), 시설(공간), 인력(사서)이라고 한다.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도서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종이책 대중화되기 전에 책을 만들 때 동양에서는 비단, 서양에서는 양피지를 사용했다. 비단은 사치스러운 섬유였으며 양피지의 경우 책 한권을 만들기 위해 새끼 양 수 십 마리가 필요했다.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를 이용해서 책을 만드는 것이 보편화됐다.

도서관이란 공간의 의미도 책과 함께 변화해 왔다. 고대와 중세시대 도서관은 지식 수집이 주된 목적이었다. 또 지식은 왕족, 귀족, 부유층, 성직자 등 고위층만의 점유물이었기에 도서관은 그들에게만 허락된 장소였다. 그러나 계급사회가 붕괴되며 공중의 정보, 지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현재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됐다.

사서의 역할 역시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고대와 중세시대 사서는 책의 관리자, 수집가 역할을 했다. 근대에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도서의 양이 증가하며 사서의 주요 업무는 책 분류가 됐다. 책의 분류 체계가 잡히고, 누구나 공공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지금 사서는 책 분류를 넘어 열람과 행사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변화했다.

사서이자 문헌정보학자인 랑가나단의 ‘5대 도서관학 법칙’ 중 제5법칙에는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라고 나와 있다. 실제로 시대가 변할 때 도서관도 함께 변해왔다. 최근 도서관은 또 한 번 변화를 준비하는 것 같다. 디지털 기술이 무르익으며 점점 책을 읽지 않는 사회에서 도서관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



필자는 도서관이 ‘경험의 공간’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도서관은 더 이상 지식 습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도서관은 큐레이터의 해설을 듣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책을 보기 위해 도서관에 가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 도서관에 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만약 도서관에 가본 지 오래됐다면 방문해 보기를 추천한다. 딱딱한 도서관이 아닌 경험과 문화의 공간으로 변화 중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의 날’ 맞이 다채로운 행사 펼쳐... “은 가족이 즐거요”

지난 4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및 야외마당에서는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주최한 본 행사는 ‘도서관의 날(4.12)’ 기념 및 도서관 주간(4.12-18) 중 도서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촉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도서관 주간에는 전국 도서관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기념식을 비롯해 ▲국제회의 ▲미래도서관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최은영 ‘밝은 밤’ 작창공연과 작가대담 ▲도서관 소풍 “요즘 도서관 뭐함?” ▲도서관의 날에 만나는 ‘서초책있는거리’ ▲우리 동네 도서관 프로젝트 찾아가는 작가강연 30개 등의 행사가 열렸다.

취재부는 도서관의 날인 4월 12일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 소풍 “요즘 도서관 뭐함?” 행사와 도서관의 날에 만나는 ‘서초책있는거리’에 참여했다.

도서관 소풍 “요즘 도서관 뭐함?”은 야외 흥보·체험 버스 운영을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존재 이유와 가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사서의 역할 등 정보를 알리는 행사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자 했다. 서초책있는거리는 서초구 도서관과 독서동아리 활동을 전시했다. 또한 공연, 동화구연, 오케스트라 공연 등 각종 문화 체험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었다.

이날 어린 자녀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은 A씨는 “맘카페에서 많이 들 간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보다 다양한 행사가 열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 내년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어리지만 평소 책을 많이 읽는다는 A씨의 아이는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 분량의 동화책을 하루에 세 권 정도 읽는다. 아이는 행사 중 바깥개비 만들기 체험을 제일 좋았던 활동으로 꼽았다. 제일 좋아하는 책으로는 ‘모두모두 안녕’이라고 말했다.

평소 독서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지만, 1365를 통해 졸업요건인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왔다고 밝힌 자원봉사자 B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행사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이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는 게 보기 좋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게 취재부의 예상과 달리,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적이고 딱딱할 것만 예측과 다르게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행사는, 기존 도서관에 대한 색인경을 완전히 벗겨버렸다. 행사장 한편에는 무대가 마련돼 비눗방울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어른들도 아이가 되어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루하지는 않을까 싶었던 우려가 무색하게, 종료 직전까지도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됐다. 곧 끝난다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취재부도 한글 레터링 엽서 만들기에 참여하며 알찬 도서관의 날을 보냈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북캉스, ‘서울 야외 도서관’으로 가자



책을 읽으며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북캉스의 계절이 돌아왔다. 도심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울 야외 도서관이 지난 4월 18일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로 운영 3년 차를 맞은 서울 야외 도서관은 지난해 약 170만 명이 방문했고, 서울 시민들은 야외 도서관을 가장 좋았던 서울시 정책 1위로 뽑으며 많은 호응을 보냈다.

2024년 서울 야외 도서관은 4월 18일 목요일부터 11월 10일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만날 수 있다. 기존 운영 장소였던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더불어 청계천까지 장소가 확대되어 도심 곳곳에서 책을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됐다.

또 주목할 점은 올해는 6월 초부터 9월 사이인 한여름에도 휴장하지 않고 운영 시간을 조정해 야간 도서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단, 청계천은 7~8월, 11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장소와 운영 일자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정보를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다. 각 야외 도서관을 알아보도록 하자.

‘책 읽는 서울광장’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도시의 거실’이란 주제로 운영된다. 2~3인용 소파가 배치되어 가족 단위로 독서하기에 좋다. ‘광화문 책 마당’은 ‘도심 속 휴양지’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청계천의 ‘책 읽는 맑은 냇가’는 금·토요일 주 2회 운영된다. 특히 광화문광장과 청계천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와 조명이 있어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필자는 지난 4월 25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야외 도서관을 방문했다. 5호선 광화문역에서 하차하면, 광화문광장의 야외 도서관이 시민들을 반겨주고 있었다.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시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곳곳에 책

상자가 놓여 있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구조였다.

광화문광장에서 약 15분 정도 걸어 가면 책 읽는 서울광장이 보인다. 서울광장에는 2~3인용 빈백이 있어 가족, 친구 단위의 방문객이 많았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분수 소리, 잔잔한 음악 소리를 배경으로 도심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책을 읽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이 많아 놀랐고, 각자 여유로움에 젖어 책을 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처럼 도심 속 책과 함께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서울 야외 도서관을 적극 추천하는 바다.

서울 야외 도서관에서는 장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광장에서는 서울시의 캐릭터인 해치 팝업 행사, 광화문광장에서는 각종 부스(웹툰 서울 문화 체험, 동행 마켓 등)를 체험할 수 있다. 도서관별 SNS 계정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책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면 더욱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개성 있게 만들어가는 나만의 독서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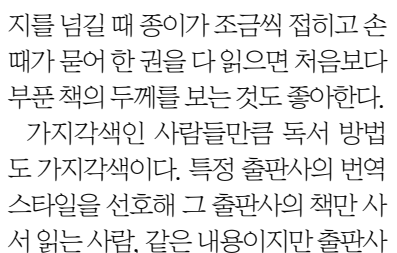
가지각색의 사람들은 당연히 독서 스타일도 다를 것이다. 평소 독서를 즐기는 광고홍보콘텐츠학과 A 학우에게 본인만의 독서 방법을 인터뷰해 봤다.

A 학우는 편독을 피하기 위해 소설, 산문, 교양, 시를 골고루 번갈아 읽는다. 책을 읽을 때 좋았던 페이지의 밑단을 접어두고, 다시 읽을 때 어느 부분이 좋아서 접어놓았는지 생각하면서 읽는다. 이렇게 읽으면 처음과 달라지는 감상과 생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좋은 표현은 메모해 놓고, 독서 노트에 읽은 책의 제목과 짧은 감상 글을 적는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읽는다. A 학우의 독서 방법을 물어보니 평소 편독하는 필자 스스로 반성하게 됐고, 다양한 사람들의 독서 방법을 알고 싶어졌다.

필자는 계절에 어울리는 책을 읽는 편이다. 봄에는 알록달록한 표지의 책을, 여름엔 오싹한 추리소설을, 가을엔 독서의 계절에 맞게 평소보다 두꺼운 책을, 겨울엔 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를 감상하곤 한다. 계절에 맞춰 책을 읽으면 책을 읽을 때의 온도와 분위기가 책과 어우러지며 뇌리에 더 깊게 파고든다. 책을 사서 읽는 경우, 페이지를 넘길 때 종이조각이 조금씩 접히고 손 때가 묻어 한 권을 다 읽으면 처음보다 부푼 책의 두께를 보는 것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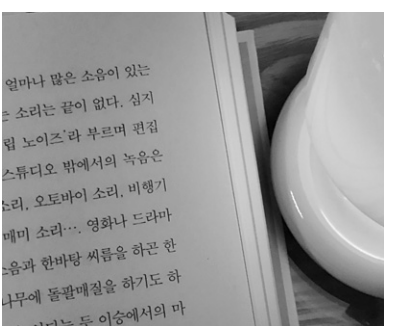
가치각색인 사람들만큼 독서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특정 출판사의 번역 스타일을 선호해 그 출판사의 책만 사서 읽는 사람, 같은 내용이지만 출판사별로 구매해 번역을 비교해 보는 사람 등 다양한 독서 방법이 있다.



한편 전자책이 발달함에 따라 전자책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종이책을 고집하는 이들이 있다. 익숙하고 눈이 편안하지만 들고 다니기 번거로운 종이책에 비해 전자책은 가볍고 언제 어디서든 독서를 할 수 있지만 충전이 필요하다는 점 등,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전자책 플랫폼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전자책으로는 ‘이북리더기’를 꼽을 수 있다. 태블릿에 앱을 깔아서도 충분히 전자책을 읽을 수 있지만, 이북리더기는 오로지 책을 읽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단말기다.

예전에는 독서 용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독서대와 책갈피 정도였지만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개성 시대에 다



양한 독서 용품이 생겨났다. 그중에서도 요즘 인기 있는 것은 ‘문진’이다. 문진은 책을 읽을 때 종이 움직임이 않도록 위에 올려두는 물건이다. SNS를 통해 유행하기 시작하며 다양한 디자인의 문진이 판매되고, 공부하는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본인의 취향에 맞는 문진을 커스텀하기도 한다.

문진과 비슷하게 책장이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는 책 전용 대형 집게인 ‘북스토퍼’도 있고, 책을 한 손으로 쉽게 들 수 있도록 엄지손가락을 끼우는 ‘독서링’도 있다.

이제는 독서할 때의 향기도 중요해졌다. ‘교보문고 밤세’로 유명한 향수를 비롯해 책과 어울리는 향기를 책에 뿌리면 책을 읽을 때 내용의 전개를 따라 상상되는 책 속 풍경에 더 깊게 빠져든다.

주간칼럼



얼마 전 필자의 모친께서 영면하셨다. 가장 가까이에서 아낌없이 응원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던 모친이었기에 상실감이 더 크다. 5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도 꽃이 드리고, 잘 드시는 단팥죽도 사드려려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게 되었다. 구수를 눈앞에 두고 계셔서 100세 시대를 살아내실 거로 생각했는데 기다려 주시지 않고 떠나셨다.

모친의 유물을 정리하면서 모친께서 쓰신 일기장을 발견하였다. 일기장에는 그날그날 있었던 간단한 일상들이 적혀있었다. 모친의 일기장을 보면서 모친의 병세가 시작된 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모친은 일기장에 무엇을 드셨는지, 무엇이 재미있었는지 등이 매일매일 적혀있어 메뉴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도 알 수 있고, 건강 상태도 느껴

졌다. 모친이 남기신 일기장은 필자의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모친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필자는 19세기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소설 "위대한 유산"이 오버랩되었다.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대표작 "위대한 유산"은 사회 비판적 시각을 잘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필립 피프(Philip Pirrip)가 자신의 삶과 사랑, 부와 친구 등에 대한 기대와 이를 향한 열망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필립, 또는 "핏"이라 불리는 주인공은 고아로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소년이다. 어느 날, 그는 부유한 계급에 속한 여인인 미스 하빈사에서 돈을 받고 자신을 교육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꾸게 된다.

위대한 유산

주간 방미영 교수

"위대한 유산"은 디킨스의 문학 적 업적 중 하나로, 그의 작품이 가진 인간성과 인생의 복잡한 면들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소설은 빈곤과 부의 간극, 사회적 계급 구조, 욕망과 채찍처럼 작용하는 사회의 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디킨스의 특정한 풍부한 인물 묘사와 풍자, 유머, 감동적인 사건들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낸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재에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영화, 연극, 텔레비전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고 있다. 이는 그의 작품이 인간의 본성, 도덕적 가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거장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에 비하면 모친의 일기장은 보

잘것없지만, 평소 모친께서 보이셨던 언행과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먹을 것을 나눌 때는 가장 좋고, 맛있는 부위를 나누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힘들어야 행복이 오려간다.", "빛나는 사람은 앞서지 않고 뒤에 선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손해 본듯하게 살아라.", "진실로 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이제 모친의 음성으로 들을 수 없지만 따뜻한 미소로 곁에서 해주신 말씀이 일기장에 어록으로 남겨졌다. 초등학교 때로 기억되는 어느 날이었다. 화장품을 방문판매 하던 분이 공터에서 도시락을 먹으려 하는 것을 본 모친께서 따뜻한 집으로 판매원을 들이면서 차갑게 식은 도시락 대신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셨던 기억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자전을 부쳐서 아파트 관리실 경비원들에게 손수 나눠주시던 기억, 아파트 청소원들 심터 방을 만들어 주시는 데 팔을 걷어붙이셨던 기억 등 또한 환한 미소와 함께 필자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공동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오신 모친은 필자에게 삶의 롤모델이며, 정신적 지주였다. 올해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모친의 행보처럼 주변을 환하게 그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더 바라며, 더 기꺼이 즐겁게 해야겠다. 모친이 남기신 일기장의 위대한 유산은 필자도 계속 이어가고픈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 기자의 눈 |

‘어떤 게 꿈이고 현실이지?’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

평소와 비슷한 하루였다. 수습 기간과 비슷한 첫 회의가 끝나고 다 같이 간식 사러 자리. 식사 도중 실수로 젓가락을 떨어트렸고, 부엌 집장님이 새로 젓가락을 가져다준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지금 상황과 모든 게 너무나도 똑같은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수습 기간분들과도 첫 만남이었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처음이기에 당연히 이전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어? 이게 있었던 일인가? 같은데?' 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 해 보는 일이나 처음 보는 대상, 장소 따위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현상을 '데자뷰', 우리 말로는 '기시감'이라고 한다. 다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나 처음 본 인물, 풍경 등이 이전에 연접 경험했거나 보았던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지 않은가? Alan S. Brown의 논문 'A review of the deja vu experience.'

에 따르면 한 세기 이상 동안 데자뷰 경험을 조사 및 사례 연구를 통해 검토됐으며 인구의 약 60%가 데자뷰를 경험했다.

하지만 필자가 젓가락을 떨어트리고 다시 받는 그 상황은 절대 이전에 있었던 일이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필자는 왜 경험했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사실 필자는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꿈에서 이 상황을 경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 주는 '예지몽'을 꾸어 이상향을 꿈에서 봤었고, 이 상황이 눈앞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기시감을 느낀 것이다.

이런 예지몽을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필자는 실제로 꿈에 나온 변호사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다. 변호 6개가 꿈에서 계속 반복됐고, 잠에서 깬 뒤 4개의 숫자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상태였다. 긴가민가했지만 필자가 본전이라는 생

각으로 4개 번호를 포함한 복권을 구매했었는데 그것이 5천 원에 당첨된 것이다! 또한 단순히 변호사 나오는 꿈이 아닌 특정 인물이 나오는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의 지인들은 이러한 꿈을 꿔를 때 "현실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꿈을 꾸 다음 날이면 타인의 얼굴을 특히나 더 집중해서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꿈으로 인해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더 눈여겨보게 되기도 한다. 필자는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 꿈에 대한 단순한 생각이지만,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꿈을 꾸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5년 미국의 과학 저널 'Explore(NY)'에 실린 논문 'Warning dreams preceding the diagnosis of breast cancer: a survey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에 따르면 실제 예지몽으로 인해 암 검사를 받아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한 사례도 있다.

의사 Larry Burk는 꿈으로 유방암 초기를 진단받은 18명의 사례를 분석했는데, 그는 그 사례들을 의식으로 느낄 수 없는 몸의 미세한 변화를 무의식이 느껴서 꿈으로 반영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다고 이러한 데자뷰, 속히 말해 '기시감'이 모두 예지몽 때문이라고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흔히 이런 기시감과 같은 현상은 뇌가 저장된 기억의 자취를 더듬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억의 착각이나 신경 세포의 혼란으로 정보 전달이 잘못되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경계의 오작동이라는 또 다른 가설도 존재한다. 우리는 평소 한 경험을 저장할 때 오감을 모두 사용하여 저장한다. 그러나 신경계의 오류로 인해 오감 중 몇 가지가 뒤늦게 인식되면 앞서 저장된 감각으로 인해 뒤늦게 전달된 감각을 통해 들어온 자극은 이미 있었던 일이라고 판단하게 된

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사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재미있지 않은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시간이란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과 미래에 경험할 것은 모두 우리 뇌 속에 이미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눈앞에 있는 사람도 믿기 어려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등한시되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 돌아가는 부분도 있다. 특히나 필자는 복권에 당첨된 이후로 예지몽은 허황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자신이 꾸는 꿈을 적어봤다가 기시감을 느낄 때 예지몽을 꾸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기자의 눈 |

신세대와 통했다! 불교의 파격적 변신

외가와 친가 모두 불교인 영향을 받아 필자는 어릴 때부터 국내의 할 것 없이 여러 지역의 절을 방문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반 친구들과 다 같이 템플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다. 친구들과 만두를 만들어 먹고 불상 앞에서 밤새 떠들다 잤던 기억이 소중히 추억으로 남아있다.

학업에 치여 절의 정취를 느껴본 지도 오래된 얼마 전, 7년 만에 편집장인 민경 언니와 함께 템플스테이를 하게 됐다. 지하철을 타고도 2시간, 마을버스와 타고 포효불불한 산에 올라가니 안개로 뒤덮인 푸른 숲속의 절은 더욱 운치 있었다.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는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절 밥을 먹는 건강한 삶을 보내니 지친 일상으로 까마득해진 내 삶에 심포를 찍을 수 있었다.

템플스테이를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 불교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바로 사전 등록했다. (2024 서울 불교박람회)는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SETEC 컨벤션 센터에서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올해의 슬로건은 '재밌는 불교'였다. 야외 공간 팔찌와 연등 만들기 체험, 다도 체험, 명상, 인형 탈 등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야외 아스팔트 위에서 뒷자리를 펼치

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 불교 박람회에 온 게 실감났다.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에 스치는 향기로온 차 냄새가 나를 이끌었다. 실내는 총 3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었다. 1관-불교 산업관에서는 불교 브랜드들의 차, 법복, 불교용품 등을, 2관-불교 미술관에서는 작가들의 여러 불교 그림과 조각상들을 전시했다. 3관-불교 체험관에는 VR 사찰 체험, 임종 체험, 명상, 발우 공양, 출가 상담, 축하 무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불교박람회는 특히 뉴진스 남(개그맨 윤성호)의 DJ 파티가 SNS에서 화제였다. 뉴진스남은 일

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에 맞춰 "극락도 락(樂)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극락왕생", "부처현생" 등의 재치 있는 구호를 외치며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이 밖에도 '중생보 호구역' 스티커나 '자빠진 쥐' 도자기, '깨닫다!' 티셔츠같이 젊은 세대에 인기 있는 아이템들은 4일 내내 매진이었다.

MZ 세대를 공략한 불교의 과감한 선택은 성공적이었다. 불교박람회 주최 측에 따르면 불교박람회 방문자 수는 작년보다 3배 증가했으며 특히 20, 30대 젊은 관광객이 늘었다고 한다. 또한 천주교, 기독교, 무교 등 불교가 아닌 사람들의 방문자 수가 훨씬 많았다. 종교가 지워지기 위해선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수다. 절은 산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종교들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중문화와의 접촉이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개인적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시도했다. [참고: KBS 뉴스]

20·30세대와 교류에 성공한 불교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는다면 종교뿐만 아니라 후대를 이어갈 젊은 이들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들도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기 할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MZ 세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든다면, 젊은 에너지와 만나 함께 있는 미래를 그릴 수 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 수습의 눈 |

특수학교 설립, 논의의 대상 아닌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날까지

지난 4·10 총선에서 서울 성동구갑 윤희숙 후보가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걸어 장애인 학생 학부모들과 큰 갈등을 빚었다. 이는 명백한 차별 공약이며 장애인의 교육권을 명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논의는 예전부터 계속 되어 왔다. '무를 끊은 학부모들'로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서진학교'를 기억하는가? 서울 강서구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특수학교를 '협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힘입어 강서구 김성태 의원은 한 방병원을 설립할 것을 공약했다. 많은 갈등이 오가자 학교 설립을 두고

주민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필자가 졸업한 탐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으며 서진학교와는 4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왔기에 가장 가깝고도 낮은 시선에서 지켜본 특수학교가 설립되기까지의 6년을 기억한다. 학교 안에서는 일반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어린 아이들이 서로 앞다투어 도움을 주려 했으나 학교 밖에서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를 외치는 어른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그렇다면 장애인 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까지 꿇

으며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장애인의 경우로 미뤄 봤을 때 집 근처로 배정되거나 원하는 곳에 지원하는 등 매우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의무교육으로 여겨지나 장애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집 근처에 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턱없이 부족하여 높은 경쟁률로 인해 입학에 유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일반 학교에 다니기에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인식과 교육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비장애학생과 통합교육보단 맞춤 교육이 가능한 특수학교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수학교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아파트단지 없는 외곽

에 설립되어 왔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 특수학교가 세워진 것은 '서진학교'가 유일하다.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설립을 반대했으나 이는 특수학교를 비선호 시설로 여기는 주민들이 만들어낸 장애인을 향한 실제 없는 혐오일 뿐, 실제 아파트 시세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학교가 부족하여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학교 부족 문제는 비단 장애인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약

자에게 포용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특수학교는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수많은 논의를 거쳐 반발을 무릅쓰고 지켜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4월에는 많은 법정기념일이 있다. 그중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비장애인의 익숙한 단영함, 그 이면에는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권리 쟁취를 위해 나아가는 그들의 힘겨운 발걸음은 계속된다. 멀지 않은 평등의 길, 함께 나아가보는 건 어떨까?

신가는 수습기자

(yulyull214@skuniv.ac.kr)

만/파/식/적

계속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10km를 달렸다. 지난 4월 28일에 열린 서울하프마라톤 10km 부문에 참가해 1시간 1분 48초의 기록을 달성했다. 첫 마라톤 기록이 생겼다.

마라톤이라곤 2022년에 나갔던 손기정 평화 마라톤 5km가 전부, 지난해 멋모르고 인터벌 훈련으로 8km를 뛰다 장경인대중후군을 진단 받았던 터라 10km를 완주할 수 있을지 가능하지 못했다. 일단 신청하고 봤다.

마라톤 당일, 무더운 날씨에 빌딩이 뻗뻗하게 늘어난 도로를 달리다 보니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옆에서 같은 페이스로 달리던 사람들도 더위에 지쳐 하나둘씩 멀어졌다. 무리하지 않고 페이스를 조절하며 달리던 도중 느닷없이 옆구리가 쑤셨다. 배 아플까 봐 발도 안 막었는데 이상했다. 배가 고된 것 같기도 하고,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오히려 공복이라 그런가 싶어 에너지젤을 조금씩 써먹었다.

5km쯤 급수대가 보여서 당장 멈추고 싶었지만 경로 한복판에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음료수가 든 종이컵을 집어 들고, 어떻게 해야 음료수를 안 흘리고 마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절반을 흘렸다. 남은 절반이라도 마시기 위해 조심조심 들이키기 시작했다. 이보다 더 달콤한 게 있을까? 얼마 안 남은 음료수가 생명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선 쓰레기를 길에 버려도 되는지 고민하다 거이여 양손에 꼭 쥐고 달렸다. 손이 흥건해진 채로 10km를 완주했다. 불편했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비록 나를 응원하는 건 아니었는지라도, 누군가를 향한 응원을 만끽하며 결국 끝인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이란. 난생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다치지도 않고 마라톤을 무사히 잘 마쳤다.

생각이 많아 집에 있다 보면 깊이 파고들기 일쑤라 바깥 공기 좀 썩고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고자 시작한 달리기였다.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기를 목표로 삼았지만 정말 30분 동안 쭉 달릴 수 있을지 스스로 의심하면서 달렸다.

그러다 친구가 러닝 크루 멤버 모집 링크를 전해줬고, 가입한 후로 많은 친구들과 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은 다들 끈기를 갖고 목표를 향해 가느라 반짝반짝 빛이 났다. 한 친구는 함께 달릴 때면 늘 용기를 북돋아 줬는데, 계속 뛰지는 못할지언정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너무 힘들어도 멈추지는 마. 멈추면 더 힘들어"라는 말에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단순히 달리기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래, 인생도 그렇다. '인생은 마라톤'이라서 멀리 봐야 한다. 당장 힘들다고 해서 갑자기 멈춰버리면 다시 뛰기 어렵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 무리하면 언젠가 탈이 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천천히 견뎌라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사실이 중요하다.

완주하려면 내게 맞는 페이스를 찾아야 한다. 빨리 가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될 건 아니니까, 뛰지는 못해도 멈추지 말고 계속할 것. 또 다시 되된다. 그렇게 내 인생도, 폴코스도 끝까지 완주해 보련다.

송민경 기자

(illdawn012@skuniv.ac.kr)

사 실

과거의 희생 위에 놓인 권리, 투표

투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투표가 갖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선거 종류를 막론하고 투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청년들의 의지가 박약하다. 이번법적인 사고에 입각한 지지자들의 불필요한 싸움은 정치에 대한 배척감을 만들고, '한 표 정도도 뭐가 바뀔까?' 하는 안일한 생각과 함께 투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MBC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20대는 53%에 그쳤다. 다른 나이에 비해 20%가량이 낮은 수치였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학내 선거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서경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광고홍보콘텐츠학과는 투표율 50%를 넘지 못해 과 학생회장이 계속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도 총학생회 선거가 개표 기준(60%)을 넘지 못해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홍익대학교와 청주대학교 같은 경우 총학생회장 후보 자체가 없어 총학생회 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출처: 동아일보] 전국의 대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행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서 투표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하고 수동적 자세가 만연하다는 방증이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이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노고와 희생이 녹아 있다. 오늘날 우리가 손에 쥘 투표권이든 마찬가지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나이 또래, 혹은 더 어린 나이의 사람들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하여 쟁취해 낸 권리이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투표권을 위해 이들은 최후탄의 가스에 고통받고, 삼단봉에 부러지며, 동료의 아픔과 절망적인 두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흰색의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의 붉은 피가 거리를 적셨다.

투표의 송고함을 마음속으로 깊이 되새기고, 의무감을 갖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동시에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우리의 권리와 투표가 가지는 힘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지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정치와 시사에 흥미를 갖고, 자신만의 정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투표 외에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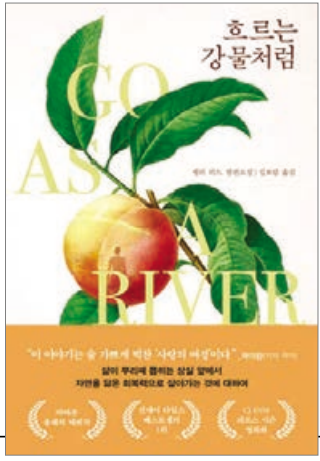
더 나은 사회를 일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투표를 비롯한 우리의 권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다음 세대로 이양해 줄 의무가 있다. 이는 선인들이 흘린 피와 땀에 대한 보답이며 후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이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yhu@naver.com)

오늘의 책

기꺼이 마주하며 살아왔다 - 흐르는 강물처럼 - 셀리 리드



▲ 출처 : 교보문고

1993년에 개봉한 동명 영화와 파올로 코엘료의 동명 소설이 워낙 유명한 터라 검색해도 바로 나오지 않는 셀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은 올해 1월에 출간된 소설이다.

흔한 로맨스 소설 같지만,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일어서는 주인공의 매혹적인 서사가 펼쳐진다. 다단복숭아향이 싱그럽게 코끝에 스치고, 눈앞에 풍경이 그려지는 듯 생생하고 흡인력 있는 필력에 450쪽이나 되는 분량에도 술술 읽힌다.

주인공인 플로라도 주 거니슨 강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빅토리아는, 달콤한

'내시 복숭아'로 유명한 복숭아 과수원집 딸이다. 난폭한 남동생 세스, 비뚤어진 오그던 이모부, 무뚝뚝한 아버지에 둘러싸여 집안일을 도맡으며 자란 빅토리아는 어느 날 이방인 월을 만난다.

그녀는 월과 한순간에 사랑에 빠져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용감하게 만드는지 알게 된다. 그러나 생전 처음 느낀 설렘과 행복은 마을에서 배척당하던 월이 피부가 벗겨진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라진다. 그녀는 늘 월을 미워하던 남동생이 월을 죽였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이전과 같이 지낸다.

빅토리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비비안 이모, 그리고 친절한 켈 오빠를 점점 더 그리워한다. 배 속에 아기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 황량한 고원의 산꼭대기로 도망친다.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살아남은 빅토리아는 우연히 숲으로 소풍 온 가족을 보게 되고,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광경을 지켜보다 이내 아기를 부부의 차에 몰래 태운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자 세스와 오그던 이모부는 이미 집을 떠났고, 아버지가 홀로 투병 중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복숭아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빅토리아는 새로운 곳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계속해서 살아갈 뿐이다.

삶이 이렇게나 기구할 수가 있을까? 빅토리아는 그 모든 여정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살아내는 힘이 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여겼지만, 실은 모든 걸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녔다.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 아니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빅토리아의 수많은 결심은 그녀를 일으킨다.

그렇게 그녀가 얻고자 하는 복숭아는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숭아는 저자의 의도대로 곤경에 맞닥뜨린 내시 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이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은유로서 기능하며 빅토리아의 삶을 관망하게 한다. 마치 자기 복숭아를 찾아 훑으라는 듯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자신만의 달콤한 '복숭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만든다.

빅토리아가 일궈온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독자 역시 삶의 궤적을 계속 이어 나가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강물은 고여 있지 않고 계속 흐른다. 지금을 지나야 다음이 오듯, 삶도 흐르기 마련이다. 그러니 잘 살아 보자, 흐르는 강물처럼.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오늘의 전시

한계란 없는 무한한 열정 - 힙노시스: 롱 플레이 스토리



〈힙노시스: 롱 플레이 스토리〉는 1960년대 후반, 앨범 커버의 전설로 여겨지는 디자인 스튜디오인 '힙노시스'가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협업하며 제작한 독창적인 앨범 커버를 소개하는 전시다. 힙노시스는 1968년부터 약 15년간 핑크 플로이드와 제네시스, 레드 제플린, 폴 매카트니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앨범 커버를 제작한 영국의 디자인 그룹이다.

전시는 층별로 나누어 힙노시스의 시작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로 진행된다. 모든 앨범 커버 사진을 수작업으로 만들어 내던 초창기부터, 산업의 변화와 함께 앨범 커버 디자인에서 영화 제작으로 넘어가는

시기까지의 힙노시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흥미로운 전시 개요가 적혀있고, QR코드를 찍으면 설명과 함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의 시작점인 2층에는 힙노시스 결성부터 작업 과정, 세계적인 록스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스튜디오 설립자인 오브리 파웰이 직접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전시 초입에 위치한 영상 촬영장에서는 힙노시스의 주역 중 한 명인 오브리 파웰의 설명이 담긴 영상이 재생된다. 이곳에선 힙노시스의 역사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또한 첫 번째 아티스트인 폴 매카트니와 윈스의 앨범 커버 제작 과정이 나와 있다.

3층에서는 아티스트 레드 제플린, 10CC, 핑크 플로이드의 작업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디지털 틀이 없던 시절, 직접 활영지를 찾아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디자인 작업을 했던 과정이 나와 있다. 더하여 인화한 사진을 오리고 붙이고 색칠하며 뮤지션의 이야기와 사운드를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인 4층에는 현재도 스튜디오를 이어가는 중인 오브리 파웰의 치열한 고민과 열정으로 가득한 순간들이

- 전시기간 : 2024.03.08 (금) ~ 2024.08.31 (토)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입장 및 매표소 마감: 오후 6시)
- 전시장소 : 그라운드시소 서촌
- 관람비용 : 15,000원 (성인/아동 · 청소년/영유아 공문)

이나연 수습기자
(yx0nd1@skuniv.ac.kr)

오늘의 장소

달을 수 없는 그 시간이 궁금하다면? - 국립고궁박물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시절, 조선부터 대한제국의 생활 문화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그 시대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조선왕실 500년, 그 삶과 마주하다'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왕실의 문화와 역사의 이해를 돕는 국립고궁박물관이다.

경복궁 안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은 경복궁역 5번 출구를 통해 갈 수 있다. 궁을 통해 박물관으로 입장하다 보니 평상시에는 볼 수 없던 평온한 궁 안의 풍경이 마음

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시실은 3개의 층, 7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2층에는 조선 왕조 상징, 기록물 및 조선 궁궐의 역사와 왕실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조선의 국왕', '조선의 궁궐', '왕실의 생활' 전시실이 있다. 1층에는 황제국과 근대국로의 전환을 살펴볼 수 있는 '대한제국' 전시실과 더불어 복도 중앙에는 순종이 타고 다녔던 '여차'가 전시되어 있다. 지하 1층에는 조선 왕실의 예술과 왕실의례 및 과학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궁중 서화', '왕실의례', '과학문화' 전시실이 있다.

아쉽게도 현재 2층의 세 전시실은 공사 중이라 10월 말까지 관람할 수 없다. 또한 상설전시실의 유물들은 보존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체된다고 하니 이 점을 유의하자.

- 위 치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운영시간 : 주중 · 주말 10:00~18:00 / 수 · 토요일 10:00~21:00
- 휴 관 일 : 신청, 설날, 추석 당일
- ※ 입장 마감은 1시간 전까지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오늘의 영화

가면 속의 사는 현대인의 거울 - 리플리 (The Talented Mr. Ripley)



▲ 출처 : 네이버 영화

'리플리 증후군'이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상상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가상의 정신질환'이다. 본 영화의 원작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제목을 뿌리로 생긴 개념이다.

1999년 개봉한 영화 '리플리'는 상류계층을 동경하다가 결국 거짓말로써 자신을 상류계층에 투영해 버린 남자의 이야기다.

다키의 패션, 향기, 말투 모든 것을 따라하려 한다. 리플리의 행동에 껄끄러움을 느낀 다키가 신분 차이로 모멸감을 주며 다름이 시작되고, 이내 리플리가 다키를 살해하고 다키인 척을 하며 살아간다. 다키의 지인들에게 몇 번 들릴 뻔하지만 거짓말과 범죄로 모면하며 영화가 전개된다.

우리는 종종 '진짜 나'를 숨기곤 한다. 의도하지 않아도 자존심, 이기심에 속아 거짓말을 한다. 특히 요즘은 '진짜 나'를 드러내기 더 어렵다. 초연결 시대라고 하였는가? 서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지만 심적 거리는 더 멀어진 기분이다. 전화나 대면보다 SNS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대. 그들의 SNS를 들여다보면 내가 알던 그는 없다. 다들 명품과 휴양지, 멋진 글귀로 SNS 속 자신을 포장하기 급급하다. 과연 그것이 '진짜 나'인가?

작중 리플리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롱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아는 사람을 차례로 죽인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이들을 아무리 죽여도 거짓은 결코 진실이 되지 않는다. '진짜 나'를 이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거짓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극단적 청 놀기만 하는 아들 다키를 데려와 주변 천달라를 지불하지' 리플리는 다키를 철저히 연구하고 대학교 동문인 척 그의 일상에 녹아든다. 다키와 어울려 다니며 자신도 상류사회의 일원이 된 마냥 심취하고, 심지어

이재근 수습기자
(worm1207@skuniv.ac.kr)

오늘의 음악

2000년대 감성이 묻어있는 청춘의 성장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간혹 불안함을 느끼는 시기가 찾아온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를 발판삼아 나갈 용기를 주는 청춘들의 성장을 담은 곡들을 골라봤다.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는 가사에 집중하며, 일명 '싸이 감성'이라고 불리는 2000년대의 이러한 감성을 느껴보자.



♪ 〈오렌지 마말레이드〉 - 저우림

"하고픈 일도 없는데 되고픈 것도 없는데 모두들 뭔가 말해보라 해 별다른 욕심도 없이 남다른 포부도 없이 이대로이면 안 되는 걸까 나 이상한 걸까?"

어릴 적 먹기 싫었던 오렌지 마말레이드를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먹었던 김윤아의 경험을 토대로 지어진 제목이라고 한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확신이 없어 갈팡질팡한 청춘들의 공감감을 자아내는 가사다. 노래에서 내외치는 소망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어른이 되지 않는 것, 아이도 어른도 아닌, 과도기를 겪는 청년들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이 담긴 곡이다.



♪ 〈내 입술 따듯한 커피처럼〉 - 샴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간다는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뿐야 Yo 단지 과정일뿐야"

노래의 제목처럼 따듯한 커피가 떠오르는 편안한 분위기의 곡이다. 달콤한 멜로디의 랩과 부드러운 보컬의 조화가 훌륭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밝고 걷는 땅이 되어주고 싶고, 입술을 따듯하게 데우는 커피가 되어주고 싶다는 은유적인 표현은 2000년대 특유의 낭만을 느끼게 한다.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 겪는 상처는 단지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라며 누구나 겪는 이별의 슬픔을 애뜻하게 위로한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 〈Fly〉 - 에픽하이

"역시 나도 때론 괜한 겁이 나 천천히 가 왜 꿈을 쉽게 버리나 때론 낮게 나는 새도 멀리 봐 어두운 밤일수록 밝은 별은 더 빛나"

되는 일이 없어 우울하고 힘든 날이면 차라리 새처럼 활활 날아가고픈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밝고 신나는 멜로디와 날개를 펼치고 나아가자는 가사 말은 언젠간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한다. 낙심에 빠진 이들에게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빛나'라며,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자체만으로 반짝이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오늘의 스포츠

다시 한번 증명의 길을 걷는 이정후

지난 4월 20일, 메이저 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3차전에서 이정후는 자이언츠 소속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다. 1회 말, 이정후는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는 149km의 공을 빠르게 끌어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이정후의 시즌 2호 홈런이자 홈구장 오라클 파크에서의 첫 홈런이었다. 이날 경기를 통해 이정후는 11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세우며 한국인 MLB 데뷔 시즌 안타 기록에 새 역사를 썼다.

4월 27일 기준, 이정후는 타율 0.271(96타수 26안타)을 기록하고 있다. 리그가 개막한 지 네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평가는 시기상조이지만, MLB의 구질에 빠르게 적응해 가며 시범 경기 시즌의 준수한 활약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적응 기간이 필요한 MLB에서 데뷔 시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정후는 예상을 상회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정후가 자신의 강점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치는 행위 그 자체를 뜻하는 '컨택' 능력과 구질을 판

단하는 '선구안'이 강점인 이정후는 이 능력을 토대로 자신의 야구가 MLB에서 통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4월 22일 자 MLB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정후의 헛스윙을 하지 않는 비중과 삼진을 당하지 않는 비중은 MLB 타자 189명 중 1위다.

하지만 이러한 준수한 활약에도 이정후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정후의 계약 규모다. 이정후는 6년 1억 1,300만 달러(약 1,504억)의 금액을 통해 MLB에 입성했다. 이는 리그의 내로라하는 선수들의 계약과 비교해도 꼴찌가 아닌 대형 계약이다. 세간은 검증되지 않은 이정후를 역대 아시아야수 최고액을 갱신하며 데려온 것에 의문을 표하며 해당 계약을 '최악의 계약 2위'로 꼽기도 했다.

이정후의 국내 팬들 또한 해당 계약에 난색을 표했다. 낯선 환경, 최상위 리그라는 압박감, 세계 구급 선수들의 존재 앞에 한국인 MLB 선수 대부분이 데뷔 시즌에 빛을 보지 못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큰 규모의 계약이 오히려 이정후의 평가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계약 규모로 보았을 때 이정후는 현재의

타율을 시즌 말까지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기 영향력에 있어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 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인 MLB 선수들이 초반에 반짝 돋보이다가 후반에 무너지는 경향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정후가 이 징크스를 깨기 위해선 타격감을 더욱 향상하고 8~9월 사이 발생하는 체력 고갈에 대비해 체력 안배에 집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부상 방지에 힘써야 한다.

이정후는 다시 한번 증명의 기로 위에 서 있다. 지난 2017년 프로 입단 당시, 그는 KBO 전설이자 아버지인 이종범의 그늘에서 물음표와 의심의 대상이 됐다. 그럼에도 7년간 자신의 야구를 증명하며 거대한 그늘을 벗어날 기회를 마련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로 도약했다. 이런 이정후의 새로운 도전 앞에 많은 물음표와 의심이 또다시 그에게 증명을 갈구하고 있다. 과연 이정후는 한국에서 그랬듯이 야구의 본고장에서도 자신의 야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yhyu@naver.com)